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탑승 1 대 1·제휴 1 대 0.82’ 적용

공정위, 대한항공 통합방안 승인
법인 통합 예정일인 12월 17일 시행
10년간 아시아나 공제기준 사용 가능
“양사 이용객 실질적 혜택 증대 중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관심이 쏠렸던 양사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확정됐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을 원치 않을 경우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아시아나 공제기준 그대로 대한항공 운항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달(14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두 항공사의 법인 통합 예정일인 오는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당초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이 소비자 권익 증진에 미흡하다고 판단, 약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이번 최종안을 도출했다.

◆ 마일리지 적립 출처에 따라 전환비율 이원화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환비율은 적립 출처에 따라 이원화됐다. 항공권 구매 및 탑승으로 쌓은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수 있다. 반면 카드사 적립 등 ‘제휴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1마일당 아시아나 0.82마일(1:0.82) 비율로 전환된다.

전환을 원치 않는 경우 합병일로부터

아시아나-대한항공 우수회원 매칭 등급					
아시아나항공(OZ)			대한항공(KE)		
등급	스타얼라이언스등급	자격기간	등급	스카이팀등급	자격기간
플래티늄	골드	평생	밀리언마일러	엘리트플러스	평생
다이아몬드플러스	골드	평생	모닝캡프리미엄	엘리트플러스	평생
다이아몬드플러스 다이아몬드	골드	24개월	모닝캡셀렉트 (신설예정)	엘리트플러스	24개월
골드	실버	24개월	모닝캡	엘리트	24개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뉴시스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되며, 소비자는 전환 신청을 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을 보장받는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통합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복합결제 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 우수회원은 기존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으로 매칭되며, 마일리지 전환 신청 시 양사 실적을 합산해 등급 재심사 혜택도 제공된다.

◆ 미주·유럽 등 인기 노선 마일리지 좌석 ‘최대 수준’ 늘어

마일리지 사용 문턱도 낮았다. 통합 이후 보너스 좌석을 잡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엄격한 좌석 공급 의무를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소진

수요가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 중 최고치였던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필요 시 성수기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 특별기도 투입할 계획이다.

소액 마일리지 소진을 돕기 위해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결제’ 하한선은 기존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추고, 최대 운임 결제 비중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행권 상품도 2배 이상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 소비자의 기존 신뢰와 마일리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거리 노선 보너스 좌석을 대폭 확대해 양사 이용객 모두의 실질적 혜택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시리 AI’ 한국어 서비스 임박 AI 스마트폰 경쟁 ‘2라운드’

애플, 내달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삼성전자 ‘갤럭시 AI’ 경쟁 본격화 전망

애플이 다음 달 차세대 비서 ‘시리 AI(Siri AI)’의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다. 갤럭시 AI를 앞세운 삼성전자와 국내 인공지능(AI) 스마트폰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애플은 15일 iOS 27과 아이패드OS(iPadOS) 27, 맥OS(macOS) 27 등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국내에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차세대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새롭게 설계한 시리 AI다.

시리 AI는 현재 영어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며 한국어는 10월부터 지원한다. 프랑스어와 일본어 등으로도 지원 언어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시리가 음성 명령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시리 AI는 이용자의 ‘개인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작업까지 처리한다. 메시지와 이메일 등에서 정보를 찾고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인식해 질문에 답하거나 여러 앱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적용 범위도 넓혔다. 글쓰기와 사진 편집 기능을 강화하고 사파리(Safari)에서는 이용자가 확인하던 상품의 재입고나 가격 변화를 알려주는 등 주요 앱에 AI 기능을 추가했다.

애플이 시리 AI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AI 경쟁도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생성형 AI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올해 세계 출하량의 45%를 차지하고 내년에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도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기반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출하된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 아이폰은 4억5000만대를 넘어섰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여러 앱을 연계해 작업을 처리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에서는 삼성전자가 먼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애플은 자체 기술에 구글의 AI도 결합했다. 차세대 AI 모델에는 구글의 제미니(Gemini) 기술을 활용해 애플 기기와 운영체제에 맞게 적용했다. 구글은 삼성전자에 이어 애플과도 AI 협력을 확대하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기기 성능 개선도 포함됐다.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앱 실행 시간은 최대 30% 단축된다. 사진 처리와 에어드롭(AirDrop) 파일 전송 속도도 개선했다.

자녀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부모가 자녀의 앱 사용 범위를 정하고 새로운 웹사이트 접속이나 연락처 추가를 승인할 수 있다. 유해한 이미지나 동영상도 감지되면 노출을 차단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한편 시리 AI는 아이폰15 프로·프로 맥스와 아이폰16 이후 제품 등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리 AI와 이미지 생성·편집 등 서버를 활용하는 일부 기능에는 하루 사용량 제한이 적용되며 애플은 향후 추가 이용량을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ngja_1ea@



metro

美 중간선거, ‘AI정책’ 핵심쟁점 부상

데이터센터 문제 등 유권자 불만 커져

인공지능(AI) 산업의 급팽창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의 생활밀착형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막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전기요금을 끌어올리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불만이 커지면서다.

미국 CNN 방송은 14일(현지시간) AI 업계 핵심 인사들까지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놓으면서 미국의 AI 정책이 정치적 분기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관련 논쟁이 이번 중간선거를 넘어 2028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이미 일부 지역에서 선거 현안으로 변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조지아와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등에서 전력과 물 소비, 고용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막대한 자원을 사용하는 데 비해 실제 지역사회에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AI와 데이터센터를 미국 경제를 끌어올릴 핵심 성장동력이자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텍사스주 달러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하기 위한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안전과 노동·생활비 문제를 앞세워 견제에 나서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관련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역시 AI 통제를 주요 정치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투자·성장 효과와 전기요금·일자리 부담 가운데 어느 쪽이 유권자에게 더 크게 체감되느냐에 따라 AI가 11월 중간선거의 주요 표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태환 기자 kth@



metro

대한민국의 새로운 하늘길,
대구경북신공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국토교통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미래 비전

중남부권 여객·물류 거점공항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장거리 노선 취항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물류 혁신

지방시대와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세계를 잇는 하늘길

글로벌 물류 허브

중남부권 거점공항